■ **르포** 서해안 기름유출 2년, 무안 도리포는 지금

# 타르 사라졌지만 '검은 한숨' 여전

## 맨손어업 등 배상문제 '산 넘어 산'

## 해양 생태계 파괴…어획량도 급감

'검은 타르'의 재앙을 기억하는가? 국내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될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7일로 꼭 2년째가 된다. 그동안 복구작업이 진행되면서 사고 해역과 전남 서해안은 외형상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기름이 파고든 생채기는 깊다. 환경 복원·배상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6일 오전 10시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앞바다. 한 겨울에도 백사장은 눈부신 자태를 뽐냈다. 갯내음이 코끝을 찔렀다. 김 양식 그물(1책당 세로 40m, 가로 2m)이 쓰러지지 않도록 개펄에 곧은 길이 3m의 대나무 지주(支柱) 수 천 개가 눈에 띄었다. 김 양식장에서는 어민들이 김을 따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1.5t급 김 채취선은 딴 김을 가득 싣고 선착장을 분주히 오갔다.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온통 검은 타르 덩어리로 뒤덮인 폐허의 현장이었다. 겉으로는 당시 상처가 아문 듯 보였다. 그러나 검은 재앙과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다.

무안군에 따르면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 신고사례 건수는 이곳에서 930건(양식 32건·어선 163건·맨손 어업 288건 등), 56억원(손해법인 감정평가액)에 달한다. 하지만 피해 주민을 위한 배상 문제는 '산 넘어 산'이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과 피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산정기준이 달라 피해액 산정과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배상이 완료된 것은 김 양식 피해 75건에, 27억원이 고작이다. 맨손 어업·비 수산(횟집 등)·어선 어업 등에 대한 배상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안·신안·영광 피해 어민들로 구성된 통합대책위원회는 이달 안에 IOPC펀드를 상대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무안통합대책위원회 이대근(52) 감사는 "주민들에게 욕먹고 사는 것도 이제는 지친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 기관도 남일 대하듯 하는데, 주민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기름 유출 사고 직후 개펄에서 나는 수산물의 어획량이 감소했다. 이전에는 맨손 어업을 하는 어민 한 명당 하루 평균 어획량이 낙지 40마리·굴 10㎏·바지락 30㎏이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어획량이 40~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어민 한현구(55)씨는 "사고가 나기 전 도리포 개펄은 낙지·바지락·굴 등 수산물의 천국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몇 시간씩 일해봐야 낙지 몇 마리 잡는 게 고작"이라며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해안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기적을 이뤘지만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한편, 기름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항해 중이던 홍콩선적 14만 6천t급 유조선 '헤베이 스프리트'와 모 중공업 소속 해상 크레인을 적재한 1만 1천800t 부선이 충돌하면서 유조선 왼쪽 오일탱크 3개에 구멍이 나 1만 810t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2년을 하루 앞둔 6일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김 양식 어민들이 김 양식장에서 갯병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김 채취가 25일에 한 번꼴로 이뤄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 기름 피해 접수 3만2천49건

# 김 양식 만 찔끔 보상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전남 서해안 지역 주민들은 김 양식장 피해 등 각종 어업피해를 입었지만, 전국에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 옛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아직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고, 생태계 복원도 이제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다.

◇**배상 진행상황**=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됐지만,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은 지지부진하다. 전남도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발생해역과 비교적 가까운 영광을 중심으로 무안, 신안, 함평, 진도 등 전남 5개 군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전남지역 피해 접수 건수는 모두 3만2천49건. 이중 수산분야가 양식 2천854건, 어선 2천366건, 맨손어업 1만9천989건, 기타 5천161건 등이었으며, 숙박·요식업 등 비 수산분야가 1천679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신안이 1만7천6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광 7천707건 ▲무안 4천432건 ▲진도 2천167건 등이었다. 하지만, 현재 피해보상은 김 양식어민에게만 한정돼 이뤄졌다.

국제기름오염 보상기금(IOPC Fund)이 산정해 통보해 온 사정금액은 신안·무안·영광·함평 4개 지역 32개 어촌계 김 5만3천775책으로, 총 81억363만4천 원이다. 이 금액은 우선 정부가 해당 어민들에게 대지급금으로 지급을 완료했다.

하지만, 4개 지역 김 양식어민들이 요구한 피해 보상규모는 김 6만1천404책, 246억9천575만6천 원으로 국제기금 피해 산정액과 3배가량 차이가 나 어민들은 피해 산정액에 동의하지 않고 충남 서산지원에 사정재판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 사정된 김 양식 7천692책의 어민들도 사정재판을 요구해 놓은 상태며, 재판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소송을 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지펴질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진도군 피해접수 2천167건은 이달 중 국제기금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맨손어업 등 기타 수산 분야는 구체적 피해를 증명할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까지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생태계 복원계획**=태안 기름유출 사고는 전남지역 해안선 113.3㎞과 전남도 내 양식장 1만9천17ha 등 광활한 지역을 초토화시켰다.

2년이 다 된 지금은 어패류와 퇴적물 등의 생태계는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영광과 무안·신안 일부 해안지역의 해수 중 독성물질 농도는 오히려 짙어진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충남과 전북, 전남 등 6천674㎢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 중 전남은 영광과 무안, 신안, 진도 등 2천478.5㎢의 면적이 포함됐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생태계 복원계획을 종합한 범정부 차원의 생태계 복원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세부계획을 준비중이다. 이와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는 훼손된 어장 복원 및 수산자원 관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참 〈7972〉 김종두

## 아파트 앞 20대 女 추락사

지난 5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출입구에서 이 아파트 6층에 사는 A(여·21)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57)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

## 공고입학 미끼 돈 받은 40대 징역형

쌍나팔

○…"자녀를 공고에 입학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6일 전문계고 입학 알선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김씨는 지난 2007년 12월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 A씨에게 "아는 교사를 통해 아들을 공고에 입학하게 해주겠다"며 현금과 상품권 등 6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

○…김씨는 A씨에게 돈을 받은 뒤 B교사에게 100만원을 건넸지만 해당 학생은 이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으며, 이후 B교사는 A씨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합의했으나 학교 측으로부터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 모 건설사 '30억 비자금' 내사

## 경찰, 계좌추적

광주지방경찰청은 6일 광주 모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건설사는 최근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된 뒤 하청업체에 지불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30억 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하청업체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초부터 관련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모 건설사와 하청업체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 중이며 비자금 조성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30대 男 부탄가스 흡입 숨져

6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한 조립식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백모(36)씨가 숨져 있는 것을 후배 조모(34)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백씨가 과거에도 부탄가스를 흡입한 적이 있다"는 조씨의 진술과 숨진 백씨의 주변에 휴대용 부탄가스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백씨가 가스를 흡입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시골 노인 상대 마늘즙을 만병통치약으로

# 23억 등친 3명 징역형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방문판매 사기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6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김모(49)씨와 손모(40)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은 판단능력이 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고, 판매 후 곧바로 현장을 정리해 구매취소나 반환을 곤란하게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월 장성에서 노인 100여명에게 4만5천원짜리 마늘즙을 의약품으로 속여 19만원에 파는 등 2007년부터 1만4천800여명을 상대로 23억6천여만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